

통섭의 시학

- 錢鍾書 『詩可以怨』의 비교문학적 접근*

한지연**

目 录

1. 들어가는 말
2. 詩의 범인류적 보편성
3. 해석의 순환과 통섭의 시학
4. 맺음말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문학 작가로서의 錢鍾書에서 벗어나 ‘학자’로서의 錢鍾書에 다시금 주목하고자 한다. 문학 영역에서 錢鍾書가 냉소적, 신랄함과 유머로 대표되는 풍자작가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면, 학술 영역에서 錢鍾書는 특정 분과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방면에 걸친 연구와 평론 활동을 하였다.

주지할 점은 錢鍾書의 폭넓은 학식과 깊은 통찰력은 문학창작보다 학문연구에서 더욱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¹⁾ 錢鍾書는 동서고금의 인문학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38233)

** 국립한밭대학교 중국어과 강사

1) 이에 대해서는 국내의 선행연구 동향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겠다. 錢鍾書와 관련된 한국 학계의 선행연구는 문학작품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을 모두 통틀어 봤을 때, 몇 편의 학술논문을 제외하고는 장편소설 『圍城』 연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錢鍾書 학술저서를 다룬 논문들이 발

영역을 두루 섭렵하면서, 상호 참조(參互), 상호 비교(參較) 등의 방법론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錢鍾書의 ‘통섭(打通)적’ 사유와 학문 정신²⁾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기는 바이다. 소위 ‘통섭’이라는 키워드에 근거했을 때 錢鍾書의 모든 학술저서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錢鍾書의 평론문(critical essay) 「詩可以怨」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하는데, 구체적 연유는 다음과 같다.

錢鍾書의 「詩可以怨」은 중국 정통 시학이론인 ‘詩可以怨’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비평논문이다. 이 글은 1980년 11월 20일 錢鍾書가 일본 와세다 대학(早稻田大學)에서 개최한 문학교수 좌담회 때 즉석에서 작성한 강연 원고였다. 처음에는 『文學評論』(1981년 제1기)에 발표되었고, 후에 錢鍾書 자신이 수정 증보하여 『比較文學論文集』(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4)에 수록되었으며, 錢鍾書가 당시 신문 및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에 발표했던 글들을 수합한 문집(文集)인 『也是集』(1984)³⁾ 및 『七綴集』⁴⁾에도 수록되어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표되었다. 이는 錢鍾書 문학작품 위주였던 기존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錢鍾書 학술저서를 알리고 그 가치를 부각시킨 데 일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 2) 소위 ‘상호 의존적(一多相依)’, ‘일관성(一貫)과 다양성(萬殊)’, ‘긍정과 부정의 상호 작용(正反依待)’ 등의 용어들은 동서와 고급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개념들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바라보고자 했던 錢鍾書의 ‘총체적’ 사유방식의 특징을 의미한다. 陳子謙著, 『錢學論』, 成都, 四川文藝出版社, 1992, 616쪽 참고.
- 3) 『也是集』은 錢鍾書가 1980년대에 집필한 세 편의 논문인 「詩可以怨」(1981), 「漢譯第一首英譯詩〈人生頌〉及有關二三事」(1982), 「一節歷史掌故、一個宗教寓言、一篇小說」(1983) 및 「『談藝錄補訂』選錄」(총 14개, 『也是集』目錄 참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시 홍콩 廣角鏡出版社 편집장이었던 李國強的 요청으로 출판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也是集』前言(1983.6)을 참고할 수 있다.
- 4) 『七綴集』은 『舊文四篇』(1979)과 『也是集』(1984)을 합본, 편집한 단행본으로 총 7편의 문예비평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上海古籍出版社에서 1985년과 1994년에 각각 초판과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七綴集』의 초판과 개정판을 비교했을 때 저서의 전체적 골격과 내용 자체는 동일하나, 일부 문장 및 표현을 약간 수정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더불어 중국 학계에서도 통상적으로 개정판을 관련 연구의 판본으로 삼고 있는 바, 본 논문에서는 『七綴集』 개정판을 주요 판본으로 하며, 이하 각주에는 쪽수만 표기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리는 「詩可以怨」에 대한 선행연구⁵⁾를 검토할 수 있다. 상기 나열한 학위논문들은 錢鍾書의 시학사상을 연구 주제로 설정하여 「詩可以怨」을 언급하였으며, 학술논문은 직접적으로 「詩可以怨」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진행하였다. 「詩可以怨」의 최초 발표시기가 1980년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국에서 현재까지도 꾸준히 연구 성과가 발표되고 있다는 점은 錢鍾書 시학사상 및 「詩可以怨」에 대한 학계의 관심이 반영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詩可以怨」이 발표된 후 이를 둘러싸고 당시 중국 학계에서 논쟁이 있었는데, 논쟁의 핵심은 다름 아닌 중국 시학전통에 대한 錢鍾書가 제시한 견해가 학술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였다. 이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평가를 크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전자는 錢鍾書의 「詩可以怨」은 서양과는 달리 중국에 비극정신이 결핍되어 있다는 기존 정론에 대한 일종의 반박이자 대항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⁶⁾ 이 외에도 「詩可以怨」을 “『管錐編』의 축소판⁷⁾”이라고 지칭하였는데, 비록 편폭은 짧으나 「詩可以怨」에 錢鍾書 본연의 글쓰기 특징 및 학문적 가치관 등이 여실히 반영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반면에 후자는 錢鍾書 특유의 비체계적 글쓰기 방식과 연구방법⁸⁾ 등에 관해 일침을 가하였다. 즉 중국

5) 이와 관련된 중국에서의 학위논문은 徐向陽의 「中國詩學技法思想嬗變研究——以錢鍾書爲例」(西南大學, 석사학위논문, 2007), 李冬生的 「詩史之爭與錢鍾書詩史觀之研究」(四川省社會科學院, 석사학위논문, 2008), 宋新麗의 「精神分析學與錢鍾書詩學研究」(四川省社會科學院, 석사학위논문, 2009), 張鵬의 「錢鍾書『談藝錄』中的感悟詩學思想研究」(中南大學, 석사학위논문, 2010), 周娟의 「錢鍾書『詩經』學研究」(海南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3) 등이 있으며, 개별 연구자들의 학술논문은 黃力之의 「“詩”不得已而怨——也談“詩可以怨”」(『求索』, 1982년 제1기)을 시작으로 30여 편이 발표되었다.

6) 高旭東, 「論錢鍾書『詩可以怨』的合理性及其限度」, 『復旦大學學報』, 第4期, 復旦大學, 2011 참고.

7) 陸文虎編, 『錢鍾書研究采輯』, 北京, 三聯書店, 1992, 69쪽 참고.

8) 錢鍾書의 비체계적 글쓰기 방식과 연구방법은 그의 주변인(周邊人)적 기질과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錢鍾書는 독서(讀書)를 통해 부단히 습득한 자신의 방대한 지식, 고민과 사유의 ‘과편’들을 자유롭게 풀어놓아 자신만의 글쓰기 방식을 모색하였다. 錢鍾書의 이러한 ‘과편적’사유방식에서 드러나는 유기성과 총체성은 錢鍾書 자신의 ‘독

고전시가에 대한 錢鍾書의 해석이 비교적 감상적이고 즉흥적이라는 점, 일부 관점들의 이론적 깊이가 부족하다는 점, 자료 인용, 기록 및 논증 등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해석의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⁹⁾, 더불어 筆記, 札記 등으로 대표되는 錢鍾書의 문체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¹⁰⁾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詩可以怨」의 타당성을 놓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꽤나 흥미로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는 「詩可以怨」이 지니고 있는 해석의 다양성 역시 의미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되도록 특정 측면에 치우치지 않고 양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텍스트인 만큼, 상호 조명을 중시하는 비교문학적 접근이 적절하리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소위 비교문학은 양손의 논리와 자세를 요구하며,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갖고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양손에 있는 대상들의 비교를 통해 단순한 대조를 통해 차이점과 공통점을 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익숙한 것과 낯선 것, 자기와 타자를 동시에 끌어안음으로써 새로운 장을 창조해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부와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다는 자기 인식의 실천이라고 간주할 수 있겠다.¹¹⁾

이를 전제로 하여 우리는 ‘詩可以怨’이라는 시학 전통에 대해 錢鍾書가 어떠한 시각으로 풀어냈는지, 왜 학문 간의 통섭을 강조했는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중국 학계에서 「詩可以怨」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바, 이는 「詩可以怨」이 지닌 위상 및

자적'인 글쓰기 세계를 구축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요인이자, 기존의 규정되고 확정된 틀을 강요하는 억압적 지배사유에 대한 일종의 실천적이고 저항적인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지연, 「錢鍾書의 비평적 글쓰기와 『管錘編』 연구를 위한 小考」, 『중국현대문학』, 제67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3, 52쪽 참고.

9) 傅道彬, 「“詩可以怨”嗎?」, 『文藝研究』, 第11期, 2007 참고.

10) 龔鵬程著, 『近代思潮與人物』, 北京, 中華書局, 2007, 391-394쪽 참고.

11) 이브 슈브렐 저, 박성창 역, 『비교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 민음사, 2002, 7-10쪽 참고.

관련 연구의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詩可以怨」에 대한 한국에서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에서의 錢鍾書 연구는 중국과는 달리 여전히 (錢鍾書의) 문학작품, 즉 특정 작품 분석에 치우친 연구의 편중성¹²⁾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최근 몇 년 사이에 「詩可以怨」에 대한 학술논문¹³⁾이 발표되었고, 이는 한국 국내학계에서 처음으로 「詩可以怨」을 번역¹⁴⁾하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논문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엿볼 수 있겠다. 「詩可以怨」을 소개하고, 「詩可以怨」이 지닌 학술성을 알리고자 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기존 연구 성과의 지향점과 일정 부분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 선행연구의 핵심내용이 「詩可以怨」 원문에 대한 解題와 譯註에만 집중되어 있으며, 원문 자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소개와 단편적 서술에만 그치고 말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고대문헌 속 「詩可以怨」과의 상호 독해를 통해 錢鍾書가 어떠한 변용을 거쳐 자신만의 학문영역으로 발전시켰는지 분석하여 기존 연구 성과의 한계를 극복한다.

- 12) 錢鍾書 관련 국내 학위논문은 모두 석사학위논문이며, 대부분이 장편소설 『圍城』을 연구한 것이다. 최근 연구 성과 역시 『圍城』에 대한 석사학위논문(沈方華, 「錢鍾書『圍城』成長敘事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이다. 선행연구에 관한 정보는 국회전자도서관(<http://dl.nanet.go.kr/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3) 이영섭의 「슬픔에 대한 중국문학과 서양문학의 문화적인 공감과 소통 : 錢鍾書의 <詩可以怨> 解題와 譯註」(『중국어문논역총간』, 제35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14)가 이에 해당된다.
- 14) 연구자에 따르면 해당 번역은 錢鍾書의 『七綴集(修訂本)』(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을 底本으로 삼고 있으며, 원래 尾註로 되어 있던 錢鍾書의 原註를 脚註로 바꾸고, 譯者의 譯註도 같이 脚註로 삽입했다고 한다. 錢鍾書가 인용한 서양문헌 제목 번역은 기본적으로 병기된 서양언어 原文보다는 錢鍾書의 중국어 번역을 따랐으며, 內註와 脚註는 일반적인 문장으로 번역했으며, 마지막으로 번역문의 章節은 譯者가 나누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章節의 구분이 없기 때문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영섭의 「슬픔에 대한 중국문학과 서양문학의 문화적인 공감과 소통 : 錢鍾書의 <詩可以怨> 解題와 譯註」(『중국어문논역총간』, 제35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14, 408쪽)을 참고할 수 있다.

둘째, 해석학적 순환 이론을 적용하여 錢鍾書가 ‘詩可以怨’이라는 문학전통과 관련된 제반의 문제들을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학술적’으로 논증하고 있는지 밝힌다.

셋째, 원문에 반영된 錢鍾書의 비교시학적 관점을 통해 錢鍾書가 추구했던 학문적 ‘통섭’의 궁극적 원인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詩可以怨」이 지닌 ‘학술사적’ 의미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錢鍾書의 「詩可以怨」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 비교문학적 접근을 통해 錢鍾書가 추구했던 ‘통섭’의 궁극적 목적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詩可以怨」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측면의 평가를 어느 정도 보완하고,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또한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詩의 범인류적 보편성

제목으로도 알 수 있듯이 ‘詩可以怨’은 중국의 시학 전통으로서 “시는 정서를 일으키고 감흥을 자아내며(詩可以興), 사물과 현상을 살피게 하며(詩可以觀), 여럿이 조화롭게 어울리게 하며(詩可以群), 잘못을 원망하되 시비를 비판할 수 있게 한다(詩可以怨).”는 『論語·陽貨篇』의 한 대목이다.¹⁵⁾ 이는 중국 고대 시가(詩歌) 및 시학에서 중요한 이론으로서, 오랜 시간동안 그 명맥을 이어나갔으며¹⁶⁾ 후세 사람들에게도 광범위한 영향을 끼쳐 다양한 해석과 이

15) 子曰：“小子何莫學夫詩？詩可以興，可以觀，可以群，可以怨。邇之事父，遠之事君；多識於鳥獸草木之名。”『論語·陽貨』第十七第九章。

16) 이에 대한 방증으로 鍾嶸의 『詩品』序의 일부분을 참고할 수 있다. (“若乃春風春鳥，秋月秋蟬，夏雲暑雨，冬月祁寒，斯四候之感諸詩者也。嘉會寄詩以親，離群托詩以怨。至於楚臣去境，漢妾辭官。或骨橫朔野，或魂逐飛蓬。或負戈外戍，殺氣雄邊。塞客衣單，嬭閨淚盡。或士有解佩出朝，一去忘反。女有揚蛾入寵，再盼傾國。凡斯種種，感蕩心靈，非陳詩何以展其義？非長歌何以騁其情？故曰：‘詩可以群，可以怨。’使窮賤易安，幽居靡悶，莫尚於詩矣。故詞人作者，罔不愛好。今之士俗，斯風熾矣。才能勝衣，甫就小學，必甘心

해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는 ‘詩可以怨’에 대한 인식이 다층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¹⁷⁾

주지할 점은 여기에는 고대 중국 시가 창작의 핵심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즉 ‘고통’, ‘번뇌’, ‘근심’ 등의 비극적 정서들은 고대 중국 시가 이론의 핵심이자, 실제 시가 창작에 있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錢鍾書의 「詩可以怨」은 제목과도 같이 孔子의 ‘詩可以怨’ 개념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으나, 이를 ‘문예’의 범주로 확장시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錢鍾書는 「詩可以怨」에서 중국 고전에서 엿보이는 비극적 요소들과 서양 비극과의 상호 비교를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접근 방법은 당시 학계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동양(중국)과 서양, 고전과 현대라는 양자의 접점을 모색하여 이를 통해 중국 전통 시가에 있어 ‘고통’, ‘번뇌’, ‘근심’, ‘원망’, ‘울분’ 등의 비극적 요소들이 문학의 주조를 이루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지, 중국과 서양을 막론하고 문예창작(여기서는 ‘詩歌’ 창작을 의미함)에서 고통과 번뇌의 ‘내적’ 정서가 창작의 촉매로 작용함을 피력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詩可以怨’ 개념의 출발점인 ‘怨’에 대한 검토가 필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전통문학에서 ‘怨’은 ‘슬픔’과

而馳騫焉。於是庸音雜體，人各爲容。至使膏腴子弟，耻文不逮，終朝點綴，分夜呻吟，獨觀謂爲警策，衆睹終淪平鈍。次有輕薄之徒，笑曹、劉爲古拙，謂鮑照義皇上人，謝朓今古獨步。而師鮑照，終不及‘日中市朝滿’；學謝朓，劣得‘黃鳥度青枝’。徒自異於高明，無涉於文流矣。” 鍾嶸著，周振甫譯註，『「詩品」譯註』，南京，江蘇教育出版社，2006，9-10쪽.

17) 이에 관해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참고할 수 있겠다. ‘詩可以怨’에 대한 이해는 문학을 통한 怨望의 자발적·적극적 發泄·表現으로 파악하는 입장과 怨이 지닌 정서의 폭을 제한하거나 순화하는 입장으로 나뉘는 경향을 보였다. 전자의 경우 孟子의 「小雅·小弁」편 해석 및 司馬遷의 관점·孔安國의 ‘怨刺上政’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孔安國의 ‘詩可以怨’에 대한 주석인 ‘怨刺上政’은 사회효용론의 관점에서 詩의 내용을 정의한 것에 해당한다. 여기서의 ‘怨’의 정서는 조절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사회정치의 영향을 받은 민중이 자연스럽게 발설시키는 감정에 해당한다. 김수경, 「朝鮮時代『詩經』인식에서의 詩可以怨과 溫柔敦厚」, 『한국한문학연구』, 52권, 한국한문학회, 2013, 380쪽 및 383-384쪽 참고.

‘원망’의 비극적 정서를 가리키며, 중국 전통 시가 이론 및 창작의 핵심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錢鍾書는 중국의 이러한 정서와 서양의 비극의식 간에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는 錢鍾書가 글을 쓰고 학문을 함에 있어 일생동안 추구했던 소위 ‘통섭(打通, theory of merging)’의 연구방법 및 사유방식¹⁸⁾과 일맥상통하는 바, 이러한 노력은 특히 그의 학술저서 『談藝錄』(1948)¹⁹⁾, 『管錘編』(1979) 등을 비롯하여 「詩可以怨」에도 여실히 반영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비극은 서양 문화가 창조해 낸 대표적이면서도 중요한 예술적 형식이자 장치, 또한 고통이라는 비극적 요소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종의 문화적 장치 및 체계이다. 이러한 문화적·철학적 명제에 관해 錢鍾書는 그의 영문논문 「중국 고전희곡 중의 비극」(Tragedy in old Chinese drama)²⁰⁾에서 중국 고전문학에는 진정한 비극정신이 결핍²¹⁾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련의 문학적 현상 및 쟁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다양한 인식을 위해서 중국 중심적 정론으로부터 벗어나 비교문학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함²²⁾

- 18) 韓知延, 「錢鍾書: “文”與“學”之間 (1929-1949)」, 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참고.
- 19) 『談藝錄』의 초판본(1948)을 수정 증보하여 1984년 中華書局에서 『談藝錄』(補訂本)을 재출간하였다.
- 20) 錢鍾書가 당시 上海에서 발간한 정기간행물 『天下月刊』(1935)에 발표한 영문논문이며, 중국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에서 2005년에 출간한 『錢鍾書英文文集』에도 수록되어 있다.
- 21) “The highest dramatic art is of course tragedy and it is precisely in tragedy that our old playwrights have to a man failed. Apart from comedies and farces, the rank and file of our serious drama belong to what is property called the romantic drama. The play does not present a single master-passion, but a series of passions loosely strung together.” 錢鍾書, 『錢鍾書英文文集』, 北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05, 54쪽.
- 22) “Our comparative study of Chinese and Western dramas is helpful for two reasons. First, it dispels many illusions cherished even by Chinese critics about our own drama. Second, it helps students of comparative literature to assign old Chinese drama to its proper place in the Palace of Art. It has been my conviction that if students of comparative literature can include old Chinese literature in their purview, they will find many new data which may lead to important modifications

을 피력한 적이 있는 바, 이처럼 ‘비교’라는 연구 프레임²³⁾은 錢鍾書 자신의 학문연구, 다시 말해 그가 평생 종사했던 중국 고전문학연구의 새로운 돌파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전시가는 산문과 더불어 중국문학의 정수이자 독자적 성격을 지닌 문체이다. 무릇 시가라 함은 각기 상이한 시대와 환경 하에 시인의 주관성이 반영되어 있기에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지니고 있으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인의 내적 ‘고통’이 반영된 산물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위 ‘고통’이라는 요소는 시의 ‘범인류적’ 보편성이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편성은 ‘詩可以怨’이라는 중국 시학 전통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논증을 위해 錢鍾書는 시의 창작이 ‘아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1900)의 주장²⁴⁾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일찍이 니체는 자신의 철학적 사변을 통

of those dogmata critica formulated by Western critics. For students of the history of old Chinese criticism, such a comparative study of actual literatures is especially important, because only by means of it can they understand how the data of our old critics differ from those of Western critics, and why those first principles of Western criticism are not seized upon by our own critics and vice versa. This has ever been my aim in various studies of our old literature. To have our fill of some aesthetic experiences, we must go to foreign literatures to have our fill of others, to our own. Asceticism in the study of literature is bad enough, but patriotism which refuses to acknowledge “good things” coming “out of Nazareth” is even worse.” 錢鍾書, 『錢鍾書英文文集』, 北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05, 64쪽.

- 23) 이에 대해 錢鍾書는 문예이론의 비교연구는 소위 ‘비교시학(comparative poetics)’의 중요하면서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연구영역이라고 지칭한 바 있다. 즉 중국 전통 문예이론과 서양의 문예이론 용어 간의 상호 비교를 통해 그 이치를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비교시학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임을 피력하였다. 張隆溪, 「錢鍾書談比較文學與“文學比較”」. 해당 문헌은 北京師範大學中文系比較文學研究組가 選編한 『比較文學研究資料』(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86, 92쪽)에 수록되어 있다.
- 24) “尼采曾把母鷄下蛋的啼叫和詩人的歌唱相提並論, 說都是‘痛苦使然’(Der Schmerz macht Hühner und Dichter gackern)。” 錢鍾書는 암탉이 알을 낳을 때 소리 지르는 것은 즐거워서가 아니라 고통스러워 소리 지른다는 니체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상술한 니체의 견해는 그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Also Sprach Zarathustra)

해 비극으로부터 고통의 기원에 대해 논하였다. 소위 니체 철학에서 고통은 삶과 밀착되어 있기에, 고통의 문제는 단독으로 다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평 속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교, 철학, 예술 등의 문화는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 주는 정교한 의미체계로서, 니체는 모든 예술, 모든 철학은 성장하거나 하강하는 삶의 치유수단이나 보조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²⁵⁾

상기 맥락에서 우리는 ‘고통’이라는 내적 정서가 동서고금의 예술행위 및 예술창작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錢鍾書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과 서양 모두 예로부터 ‘슬픔’과 ‘원망’을 문학, 특히 詩歌 창작의 주된 정서와 소재로 삼아 왔었으며, 이는 중국문학전통 중에서 널리 통용되는 견해, 즉 ‘고통’이 쾌락보다 詩歌를 더 잘 만들어내고, 좋은 시는 주로 유쾌하지 않은 ‘번뇌’, 혹은 “공군하여 근심에 빠진 心思”의 표현과 발설이라는 점²⁶⁾이다. 이를 위해 錢鍾書는 중국과 서양의 다양한 原典들을 인용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 상호 비교와 논증을 통해 양자의 균형점을 찾고자 했다. 또한 통시적인 관점에서 원망과 슬픔의 글쓰기의 목적은 애초에는 자신의 글을 통해 자신의 이름이 후세에 전해짐으로서 현실에서의 자신의 억울함과 불우함을 극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 직접적으로 자신에 대한 위로와 불만 해소를 위해 지어졌던 사실 역시 지적하고 있다. 비록 슬픔과 함께 기쁨까지 글을 짓게 만드는 감정의 동력으로 인식하는 이들이 등장하기도 했으나, 결국 글짓기의 주류는 ‘슬픔’과 ‘원망’이었고, 이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슬픔과

제4부 13장을 출처로 삼고 있다. 錢鍾書, 「詩可以怨」, 『七綴集(修訂本)』, 120쪽 및 133쪽 참고.

25) 김동규, 「니체 철학에서의 고통과 비극 - 문화철학의 관점에서」, 『철학탐구』, 제26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9, 147-150쪽 참고.

26) “這個家常而生動的比擬也恰恰符合中國文藝傳統裡一個流行的意見：苦痛比快樂更能產生詩歌，好詩主要是不愉快、苦惱或“窮愁”的表現和發洩。” 錢鍾書, 「詩可以怨」, 『七綴集(修訂本)』, 120쪽 및 133쪽. 본 논문의 錢鍾書 「詩可以怨」 번역문은 이영섭의 「슬픔에 대한 중국문학과 서양문학의 문화적인 공감과 소통 : 錢鍾書의 <詩可以怨> 解題와 譯註」(『중국어문논역총간』, 제35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14)를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원망을 날조해 내는 이들까지 생겨났음²⁷⁾을 순차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錢鍾書의 이러한 주장이 겉으로는 전혀 달라 보이는 중국과 서양문학에 내재된 ‘비극성(비극의식)’을 그 기저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부정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변혁적 서구문화는 비극의식의 ‘폭로적’ 기능을 이용한다. 다시 말해 작가가 처한 곤경을 이용하여 진상을 밝히고 진정한 앎을 찾음으로서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서양과는 달리 ‘보존적’인 경향이 강하기에, 비극의식으로 작가의 곤경을 폭로하면서도 제도, 예의, 윤리 등을 파괴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처럼 중국과 서양의 비극의식이 형태, 특징, 내용 등에서 극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지만, 양자 모두 폭로와 보완/보존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각기 문화의 생장(生長)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동형 구조로 볼 수 있는 것이다.²⁸⁾

이러한 측면에서 錢鍾書의 「詩可以怨」은 소위 ‘전통’과 ‘정론’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자 ‘반란’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錢鍾書는 ‘전통’과 ‘정론’을 적극적으로 계승, 수용하면서도 이로부터 파생된 문제의식을 유감없이 드러내었다. 錢鍾書는 여태껏 ‘당연하게’ 여겨왔던 전통의 습성과 이론을 재검토함으로써 기존의 학술적 관점과 견해를 과감히 갱신하고자 했다.

시(詩), 사(詞), 수필 및 소설, 희곡 및 가요(歌謠)와 속담(諺語)에서는 짧은 몇 마디 속에서도 훌륭한 견해를 드러낸다. 이는 사람의 정신에 유익할뿐더러 깊은 지혜 역시 알려준다. 그 의미들을 펼쳐 놓았을 때 이는 문예이론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다. 아마 누군가는 이처럼 사소하고 보잘 것 없는 것들 가지고는 성과를 이룰 수 없고, 또한 이를 수집하고 칭찬할 가치가 없다고 여길 것이다. 기껏해야 고립된 상태에서 스스로 나온 의견에 불과하니, 이는 체계적이고 자각적인 이론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사소하고 보잘 것 없다는 이유로 소홀해 지고 잊히기 마련이니

27) 이영섭, 「슬픔에 대한 중국문학과 서양문학의 문화적인 공감과 소통 : 錢鍾書의 <詩可以怨> 解題와 譯註」, 『중국어문논역총간』, 제35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14, 407쪽 참고.

28) 장파 저, 유중하 등 공역,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푸른숲, 1999, 166-185쪽 참고.

더욱이 누군가가 정리하고 또한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나온 개인의 견해는 자발적이고 주도면밀한 이론의 근원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읽는 시화(詩話), 문학이론 등에 반드시 이론체계가 필요하지는 않다.²⁹⁾

‘사소하고 보잘 것 없는 것’들을 누군가가 ‘정리’해야 하고 또한 이를 ‘소중히’ 여겨야 함을 강조하는 錢鍾書의 말에서 우리는 錢鍾書의 사유구조를 엿볼 수 있다. 그는 ‘詩可以怨’과 관련된 각종 정론들에 집중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중국문학에 비극의식이 결핍되어 있다는 기존 정설을 바로 잡고, 詩歌라는 문학양식을 매개체로 하여 인류 공통의 심미적 정서의 근원을 밝히고자 했다. 이는 마치 (자국의 문학인) 중국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국의 문학인) 서양문학을 연구해야 하고, (타국의 문학인) 서양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국의 문학인) 중국문학을 연구해야 한다는 錢鍾書의 주장³⁰⁾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요컨대 錢鍾書가 ‘詩可以怨’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점은 다름 아닌 전통의 불변성과 확실성이 아닌, 동서고금의 시공간을 아우를 수 있으면서도 현재와도 소통하여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다원성’과 ‘보편성’이었다.

3. 해석의 순환과 통섭의 시학

소위 해석학의 대상은 전통적으로는 고전(경전) 등 문자로 쓰인 텍스트를

29) “倒是詩、詞、筆記裡，小說、戲曲裡，乃至謠諺和訓詁裡，往往無意中三言兩語，說出了益入神智的精湛見解，含蘊著很新鮮的藝術理論，值得我們重視和表彰。也許有人說，這些鷄零狗碎的小東西不成氣候，而且只是孤立的、自發的見解，够不上系統的、自覺的理論。不過，正因為零星瑣碎的東西易被忽視和遺忘，就愈需要收拾和愛惜，自發的簡單見解正是自覺的周密理論的根本。再說，我們孜孜閱讀的詩話、文論之類，一般也談不上有什麼理論系統。” 錢鍾書，「讀『拉奧孔』」，《七綴集(修訂本)》，33-34쪽.

30) 中國社會科學院訪美代表團著，《訪美觀感》，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79，53쪽.

주요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문자 텍스트 이외에도, 음악, 미술, 역사, 제도 등 문자 기록 역시 해석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대 수사학에서 출발하여 근대 해석학으로 이어진 역사의 궤적을 다시금 상기했을 때 그 안에는 다름 아닌 ‘순환’의 규칙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순환’의 개념은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자 장치, 도구임과 동시에, ‘전체’와 ‘부분’의 상호관계, 즉 ‘해석학적 순환(Hermeneutics circle, Hermeneutischer Zirkel)’을 의미한다. 하나의 텍스트가 구성되려면 텍스트를 이루고 있는 문맥에서 생겨나는 의미기대치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한 의미 기대치가 다시 텍스트 전체의 문맥에 맞게 수정되는 등 일정한 조율과정을 거치면서 의미가 확장되고 재구성된다.³¹⁾

본 논문에서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특정 이론을 언급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연유가 포함된다. 첫째, 「詩可以怨」에서 錢鍾書는 해석학적 순환 원리를 이용하여 ‘詩可以怨’이라는 명제를 설명, 논증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이러한 해석학적 접근법은 錢鍾書의 학술연구방법 중의 하나라는 점이다. 따라서 「詩可以怨」의 독해와 연구를 위해서는 서양학문의 해석학 이론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889-1976)의 주장을 검토해 볼 수 있겠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1927)에서 의미라는 개념은 ‘앞서 가짐’, ‘앞서 봄’, ‘앞서 잡음’에 의해서 구조 지어진 ‘기획투사(projekt)’의 그리로(의미지평, common space of meaning)이며 거기에서부터 어떤 것이 어떤 것으로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해석이 자신의 첫 번째이며 지속적이고 최종적인 과제를, 그때마다 ‘앞서 가짐’, ‘앞서 봄’, ‘앞서 잡음’을 즉흥적 착상이나 통속개념에 의해서 제시되도록 버려두지 않고, 오히려 사태 자체에서부터 그것을 정리 작업하여 학문적인 주제로 확실히 하는 데에 있음을 이해한 경우에만 그렇다고 하였다.³²⁾ 이러한 의미에서 해석학적 순환 속에는 가장 근원적인 인식을 가능

31) 김병옥, 『도이치문학 용어사전』,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737쪽 및 한스게오르크 가다머 지음, 임홍배 옮김, 『진리와 방법2』, 문학동네, 2012, 171-172쪽 참고.

32) 마르틴 하이데거 저,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서울, 까치글방, 1998, 210-212쪽.

하게 해 주는 긍정적 가능성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를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공상이나 통념에 의해 떠오르는 의도와 예견, 추정 등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사태 그 자체로부터 학문적 탐구주제를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해석학적 순환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 의미를 비롯하여 ‘순환’을 통해 새로운 ‘의미지평’을 열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경합된 의미들이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상호 동반 작용을 하며, 마침내 보다 분명하게 의미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소위 ‘이해’와 ‘해석’의 의미형성 과정을 결정하는 바, 이것이 곧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해의 과정이다.³³⁾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해석학적 방법론이 錢鍾書 학술연구의 방법 및 그의 학문적 사유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그의 모든 학술저서를 관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증으로 錢鍾書 저서의 한 대목을 선별하여 살펴 볼 수 있겠다.

진(晉)의 사정자(士貞子)가 진문공(晉文公)의 말을 빌려 진후(晉侯)에게 “조나라에 득신이 여전히 살아 있으니 내 근심이 그치질 않는다. 짐승도 곤경에 빠지면 역시 죽을힘을 다해 싸우는 것인데, 하물며 한 나라의 제상은 말할 것도 없지 않은가?”라고 간언하였다. 『좌전·희공22년(左傳·僖公二十二年)』에도 “별이나 전갈이 비록 작지만 사람을 해칠 수 있는데, 하물며 국가도 그러하다.”라고 하였다.…… 『손자병법(孫子兵法)』에서는 이를 자세히 논하고 있는데, 『손자병법』 군쟁(軍爭)편에는 “궁지에 몰린 도적을 쫓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적군에 대한 회유책에 일환으로서 적에게 굴복하지 않기 위함이다. 후세에서 이르길 “용기는 두려움에서 나온다.(An eminent poet tells US that all courage is fear)”³⁴⁾라고 했으며, 혹자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얻는다.(what resolution from despair)”³⁵⁾, “희망이 없으면 두려움 역시 없다.(For where no hope is left is left no fear)”³⁶⁾고 일컬었다.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도

33) 한스게오르크 가다머 지음, 임홍배 옮김, 『진리와 방법2』, 137-139쪽 참고.

34) 대니얼 디포(Daniel Defoe, 1660~1731)의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1719)의 구절이다.

35) 존 밀턴(John Milton, 1608~1674)의 장편 서사시 『실낙원(Paradise Lost)』(1667)의 구절이다.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 오히려 두려움이 없어지는데(to be frightened out of fear), 비둘기가 부리로 매를 쪼는 것이나 다름없다.(the dove will peck the estridge)”라고 하였는데, 이는 『구자·애공(荀子·哀公)』에서 “새가 쫓겨서 궁지에 몰리면 상대방을 쪼다(鳥窮則啄).”라는 말과 합치된다. 이는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1776)이 감정을 논할 때 언급한 ‘상반되는 감정의 상호 전환성(any emotion which attends a passion is converted into it, though in their natures they are originally different from, and even contrary to, each other)’, 혹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피로의 법칙(Law of fatigue)’과도 같은 바이다.³⁷⁾

錢鍾書는 상호 간의 분석 및 해석을 진행하여 학문의 새로운 체계(參照系)를 도출하였다.³⁸⁾ 이는 바로 ‘개체’와 ‘전체’, ‘전체’와 ‘개체’의 상호 순환, 즉 ‘해석학적 순환(闡釋之循環)’³⁹⁾을 의미하는데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6) 셰익스피어의 비극 『안토니아와 클레오파트라(Antony and Cleopatra)』(1607)의 구절이다.

37) “士貞子諫晉侯，引晉文公語曰：‘得臣猶在，憂未歇也，困獸猶鬪，況國相乎？’按僖公二十二年，臧文仲曰：‘蜂豸有毒，而況國乎？’……《孫子》論此，最為周匝。《軍爭》篇云：‘歸師勿遏，圍師必闕，窮寇勿迫’；此柔人者也，防敵之困鬪窮觸也。後世或云：‘勇出於恐’(An eminent poet tells US that all courage is fear)，或云：‘增援兵能增希望，然絕望則生決心’(what resolution from despair)，‘無希冀則亦無恐怖’(For where no hope is left is left no fear)。莎士比亞一再言恐極則反無恐(to be frightened out of fear)，馴鴿窮則啄怒鷹(the dove will peck the estridge)，更合‘鳥窮則啄’之喻。其理即休謨論情感所謂兩情相反而互轉(any emotion which attends a passion is converted into it, though in their natures they are originally different from, and even contrary to, each other)；或心理學所謂‘疲乏律’(Law of fatigue)。”錢鍾書，『管錘編』，北京，中華書局，1979，203-204쪽.

38) 한지연, 「錢鍾書『談藝錄』에 나타난 비평의식- 第一則〈詩分唐宋〉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70집, 중국학연구회, 2014, 86-87쪽 참고.

39) 錢鍾書는 『管錘編』(北京, 中華書局, 1979)의 「左傳正義·隱公元年」에서 “悟生”(어려움), “待熟”(익숙해지기를 기다림), “因果句和兩端句”(인과문 및 병렬문), “考詞之終始”(문구[文句] 고찰의 끝과 시작[시작과 끝]), “闡釋之循環”(해석의 순환), “志之歧義”(‘상호 순환’ 및 ‘정반합’의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도달한 ‘목표’의) 다양한 해석) 등 6개의 주제로 나누어 ‘해석의 순환’에 대해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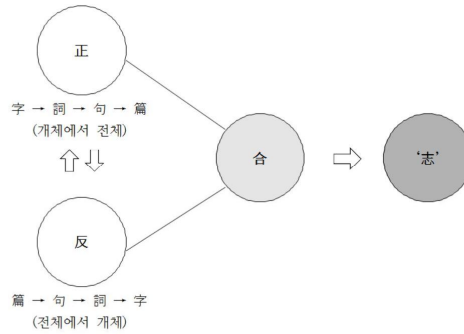


그림 1. 해석학적 순환

개체는 전체를 통해서 이해되며, 전체 또한 개체들로부터 구성되므로, 이렇게 상호관계에 있는 전체와 개체가 ‘정반합(正反合)’의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목표(志)’⁴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錢鍾書 학술연구의 방법 및 그의 학문적 사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詩可以怨」 또한 예외가 아닌 바, 이러한 특징은 ‘詩可以怨’의 논지를 전개,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일조를 하고 있다. 錢鍾書는 「詩可以怨」에서古今이라는 씨줄과東西라는 날줄을 기준으로 하여 상호 간의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詩可以怨’ 전통의 의미를 새롭게 발굴하고자 했다. 「詩可以怨」에 제시된 사례들이 적지 않기에, 편폭 관계상 일부만 선별하여 제시하였음을 명확히 밝혀두는 바, 하단의 인용문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사마천(司馬遷)이 열거한 일련의 ‘발분(發憤)’한 저작들은 대개 이치를 따지는 문장이나 사건을 기록하는 문장이었는데, 맨 마지막에 열거된 『시경(詩經)』에 대해서는 실려 있는 305수의 시를 막무가내로 모두 ‘원망(怨)’의 예로 귀결시켜버렸습니다. 종영(鍾嶸)은 시가(詩歌)에 대해 논하면서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었습니다. 『시품·서(詩品·序)』의 “성대한 연회에서는 주인이 손님에게 시(詩)로서 정의(情誼)를 표

40) 錢鍾書, 『管錘編』, 168-172쪽.

시하고, 무리를 떠나게 되면 시(詩)로서 그 서글픔을 나타낸다.……이런 까닭에 공자(孔子)께서 “시(詩)는 무리 지을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니, **곤궁함에 처한 이를 안빈낙도(安貧樂道)하게 하여 근심 없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시(詩)만한 것이 없다.**”라는 이 단락의 지적에 우리는 줄곧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시다.⁴¹⁾

중영은 “**곤궁함에 처한 이를 안빈낙도하게 하여 근심 없이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데에는 시(詩)만한 것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작품이 작자 생존 시에 그 **작자의 고난과 영락(零落)한 인생을 잘 위로해 줄 수 있는 효능**을 강조했습니다.……진자룡(陳子龍)은 『시경』이 “비록 경사를 기리고 축하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모두 풍자라고 여겼고, 이어(李漁)는 자기 극본 속 즐거움이 가득한 ‘환상의 세계’란 바로 자기 생활 속에 움츠려 있는 ‘현실 상황’의 반영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모두들 프로이트의 유명한 이론, 즉 **실제 생활에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사람은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 물러나 문학작품을 창작하며 일종의 대리 만족의 효과를 일으키고, 환상을 통해 그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이론**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프로이트의 이 이론이 중영이 말했던 주장에 일찌감치 그 단서를 약간이나마 드러내 보이고 있고, 더욱이 주즙(周楫)과 이어의 말에서는 이와 같은 요지(要旨)가 대략적으로나 나타나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없는 사실을 건강부회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들이 마치 이전에 서로 알고 지낸 듯 서로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에 주의 해달라는 말입니다.⁴²⁾

- 41) “司馬遷舉了一系列‘發憤’的著作，有的說理，有的記事，最后把《詩三百篇》籠統都歸於‘怨’，作為其中一個例子。鍾嶸單就詩歌而論，對這個意思加以具體發揮。《詩品·序》裡有一節話，我們一向沒有好好留心。‘嘉會寄詩以親，離群托詩以怨，至於楚臣去境，漢妾辭宮；或骨橫朔野，魂逐飛蓬；或負戈外戍，殺氣雄邊，塞客衣單，嬋閨淚盡；或士有解佩出朝，一去忘返，女有揚蛾入寵，再盼傾國。凡斯種種，感蕩心靈，非陳詩何以展其義？非長歌何以騁其情？故曰：‘詩可以群，可以怨。’使窮賤易安，幽居靡悶，莫尚於詩矣！”錢鍾書，「詩可以怨」，『七綴集(修訂本)』，123쪽.
- 42) “鍾嶸說‘使窮賤易安，幽居靡悶，莫尚於是詩’；強調了作品在作者生時起的功用，能使他和艱辛孤寂的生涯妥協相安。……正像陳子龍以為《三百篇》裡‘雖頌皆刺’，李漁承認他劇本裡歡天喜地的‘幻境’正是他生活裡局天踏地的‘真境’的‘反映’。……大家都熟知弗洛伊德的有名理論：在實際生活裡不能滿足欲望的人，死了心作退一步想，創造出文藝來，起一種替代品的功用(Ersatz für den Triebverzicht)，借幻想來過癮(Phantasiebefriedigungen)。假如說，弗洛伊德這個理論早在鍾嶸的三句話裡稍露端倪，更在周楫和李漁的兩段話裡粗見

상기 인용문의 요점은 다름 아닌 ‘詩’의 효용성이다. 바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零落하여 愁心이 가득할 때에는 오로지 “詩로서 원망할 수 있다”(詩可以怨)는 것에 의지하여 스스로를 ‘위로’하여 ‘위안’과 ‘보상’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詩可以怨’에서 ‘怨’은 ‘원망’이라는 표면적 의미에서 인류의 보편적 감정인 슬픔이라는 과생적 의미 이외에도, 더 나아가 현실 및 사회를 향한 비판과도 연결되고 있다.

錢鍾書는 孔子의 ‘詩可以怨’으로부터 출발하여 司馬遷의 ‘發憤著書’, 鍾嶸 및 劉勰의 ‘吟咏情性’, 韓愈의 ‘不平則鳴’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고대문예이론을 비롯하여, 서양의 문예이론까지 과감히 끌어들이어 자신의 견해를 논증하고 있다. 보다 용이한 접근을 위해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만들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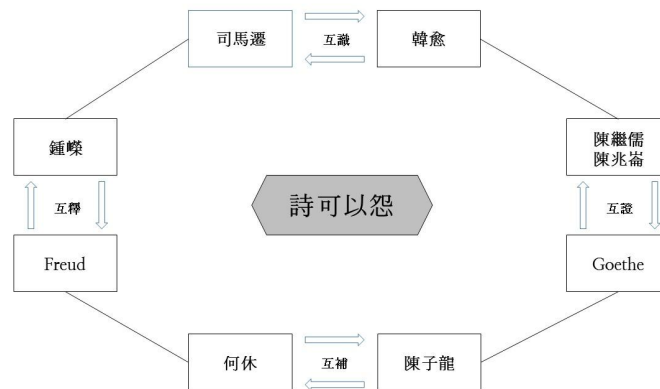


그림 2. 「詩可以怨」의 상호 순환적 구조

상기 도식은 「詩可以怨」에 제시된 다양한 논증 예시들 중에서 해석학적 순환의 양상이 잘 반영된 몇 가지를 선별하여 구성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각

眉目, 那也許不是牽強拉攏, 而只是請大家注意他們似曾相識罷了。” 錢鍾書, 「詩可以怨」, 『七綴集(修訂本)』, 124-125쪽.

각의 예시가 양자 간의 상호 지식(互識, Mutual Knowledge)⁴³⁾, 상호 해석(互釋, Mutual Interpretation)⁴⁴⁾, 상호 보완(互補, Mutual Complementation)⁴⁵⁾, 상호 입증(互證, Mutual Confirmation)⁴⁶⁾ 등 비교 시학의 주요 이론들과 상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詩可以怨」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데, 동서고금의 화두들을 중횡 무진하는 錢鍾書의 학문적 특성에서 비롯된 그의 방대한 지식, 감회 및 사유의 ‘파편’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기에 錢鍾書 특유의 散發의 문체성이 엿보이기는 하지만⁴⁷⁾, 錢鍾書는 「詩可以怨」에 대한 기존의 이해와 새로운 지식 사이 간의 ‘상호 순환적’ 이해를 다방면으로 모색하여 「詩可以怨」의 외연을 확장시키고자 했다.

錢鍾書가 「詩可以怨」에서 보여준 ‘해석학적 순환’은 특정 텍스트(중국과 서양의 詩文에 대한 수사학적, 혹은 문법적 해석 등을 포함)에 국한시키지 않고

-
- 43) 司馬遷의 ‘發憤所爲作’과 韓愈의 ‘不平則鳴’이 이에 해당한다. 錢鍾書, 「詩可以怨」, 『七綴集(修訂本)』, 126-131쪽.
- 44) 鍾嶸의 ‘詩可以怨에 의한 위로와 보상’과 프로이트의 ‘대리만족(Ersatz für den Triebverzicht)’ 및 ‘욕구충족(Phantasiebefriedigungen)’이 이에 해당한다. 錢鍾書, 「詩可以怨」, 『七綴集(修訂本)』, 124-125쪽.
- 45) 何休의 (餓주린 자[餓者]와 노동하는 자[勞者]들이) ‘원망하여 노래(怨恨而歌)’하는 것과 陳子龍의 ‘頌’이란 완곡하게 ‘刺’를 돌려 말하는 것(雖頌皆刺)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은 『詩經』의 현실주의 전통과도 연결되고 있다. 錢鍾書, 「詩可以怨」, 『七綴集(修訂本)』, 121쪽 및 游國恩, 王起, 蕭滌非, 季鎮淮, 費振剛主編, 『中國文學史』(一),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2, 48쪽.
- 46) 陳兆崙의 즐거움(歡樂)은 ‘발산하여 남는 것이 없는 것(發而無餘)’ 및 陳繼儒의 근심(憂愁)은 ‘이리저리 뒤척여도 다하지 않는 것’(轉而不盡)과 皮테의 즐거움(快樂)은 ‘둥근 공 모양(die Kugel)’ 및 근심(愁苦)은 ‘다가형(das Vieleck)’이 이에 해당한다. 錢鍾書, 「詩可以怨」, 『七綴集(修訂本)』, 128쪽.
- 47) 선행연구에서는 錢鍾書의 문체적 특성을 ‘수집’과 ‘인용’으로 이루어진 ‘註釋’ 달기와 ‘解題’라고 지칭하여 錢鍾書 문체의 散發性에 대해 논한 적이 있다. 이러한 문체성은 소설, 산문 등을 비롯하여 『談藝錄』, 『管錐編』, 『七綴集』 등의 학술저서에서 더욱 두드러져 글쓰기의 ‘전문성(professional)’과 ‘학술성(academic)’의 특징이 부각되어지고 있다. 더불어 錢鍾書는 經典의 수집과 熟讀을 거쳐 얻은 학문적 心得을 註釋의 형식을 빌려 經典의 내용을 ‘인용’하고 ‘상호 참조’하여 그것의 깊은 含意를 끊임없이 ‘재해석’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지연, 「錢鍾書의 비평적 글쓰기와 『管錐編』 연구를 위한 小考」, 『중국현대문학』, 제67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3, 47쪽 참고.

있다. 다시 말해 상황에 따라 텍스트의 의미가 언제든지 재생산, 재구성될 수 있다는 ‘다양성’, ‘개방성’ 및 ‘총체성(圓照周覽)’⁴⁸⁾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석학적인 고찰을 엿볼 수 있다. 즉 이는 지식을 어느 특정 영역의 지식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텍스트 외부와 내부 간의 상호 순환에 착안하여, 의미를 재구성하고 창출해내어 학문적 지평의 확장과 통섭을 추구하고자 한 해석학적 순환의 지향점⁴⁹⁾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錢鍾書는 「詩可以怨」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제가 이 글 첫머리에서 “시(詩)는 원망할 수 있다(詩可以怨)”라는 주장이 중국 고대문학의 주장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거침없이 제 견해를 펼치는 와중에, 저는 근대 서양의 주장들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서양을 말하고 근대를 말할 때 역시 부지불식간에 중국이나 고대까지 포함합니다. **인문과학의 각 대상들은 서로 연계가 되어 상호 작용하는데, 이는 국경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각 시대조차 서로 엮여 있습니다.** 단지 인류의 생명과 지혜에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의상 우리의 연구영역을 점차 좁히고 전문 분야를 점차 세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 학문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주관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매우 득의양양할 일일지는 몰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부득이한 일일 따름입니다. “시는 원망할 수 있다(詩可以怨)”라는 주장 역시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고대에 시가(詩歌)를 논평하는데 ‘고난의 표현(窮苦之言)’을 중시하고, 고대에 음악을 감상하는 데에도 “비애를 위주(以悲哀爲主)”로 했다는, 이 두 갈래의 서로 유사한 전통은 서로 같은 심리적이고 사회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⁵⁰⁾

48) 이는 錢鍾書의 사유방식 및 학문방법의 특징이기도 하다.

49) 일찍이 錢鍾書는 『談藝錄』(1948)에서 「詩分唐宋」이라는 제목으로 唐宋 시를 전문적으로 다루었던 적이 있었다. 여기서 錢鍾書는 시대와 왕조에 근거한 기존의 이분법적 견해에서 탈피, 共時的 관점에서 唐宋 詩의 상호 연관성에 주목하여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에 관해서는 한지연, 「錢鍾書『談藝錄』에 나타난 비평의식- 第一則 <詩分唐宋>을 중심으로」(『중국학연구』, 제70집, 중국학연구회, 2014)를 참고하였다.

50) “我開頭說, ‘詩可以怨’是中國古代的一種文學主張。在信口開河的過程裡, 我牽上了西洋近代。這是很自然的事。我們講西洋, 講近代, 也會不知不覺地遠及中國, 上溯古代。人文科

비극은 이미 현대의 ‘새로운 비평가’들에 의해 쓸모없는 물건으로 폐기처분된 것 같으나, 비극의 위대함은 동서양 고전문학에서 공통적으로 엿보이면서도 골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전통 역시 서로 같은 ‘심리적’이면서도 ‘사회적’ 기반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겼던 錢鍾書의 학문적 사유와 실천은 소위 일컫는 초국가적, 범세계적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될 만하다. 동서양의 각종 이론과 지식의 바다 속에서 ‘詩可以怨’의 전통은 재맥락화와 탈맥락화를 거듭하며 錢鍾書에 의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다. 학자 錢鍾書에게 있어 ‘詩可以怨’이라는 시학 전통은 단절과 배척의 대상이 아닌, ‘해명(澄清)’과 ‘해석(闡釋)’의 실천을 통해 필히 해결해야 했던 절실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錢鍾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詩可以怨’을 둘러싼 일련의 대상 및 현상들을 대립과 모순의 관계가 아닌 ‘상호’ 관계로 인식하여 양자의 공존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중국과 서양 간의 비교 시학 연구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고, 동시에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학문의 ‘통섭’적 연구의 가능성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詩可以怨」의 학술적 가치와 그 의미를 엿볼 수 있다.

4. 맺음말

錢鍾書는 ‘詩可以怨’이라는 관습적 명제를 둘러싼 동서양의 정론이 남긴 한계를 인식, 서양 詩文 및 문학이론과의 상호 비교, 대조 및 참고를 통해 중국

學的各個對象彼此系連，交互映發，不但跨越國界，銜接時代，而且貫串著不同的學科。由於人類生命和智力的嚴峻局限，我們為方便起見，只能把研究領域圈得愈來愈窄，把專門學科分得愈來愈細。此外沒有辦法。所以，成為某一門學問的專家，雖在主觀上是得意的事，而在客觀上是不得已的事。‘詩可以怨’也牽涉到更大的問題。古代評論詩歌，重視‘窮苦之言’，而古代欣賞音樂，也‘以悲哀為主’；這兩個類似的傳統有沒有共同的心理基礎？悲劇已遭現代‘新批評家’鄙棄為要不得的東西了，但是歷史上佔優勢的理論認為這個劇種比喜劇偉大；那種傳統看法和壓低‘歡愉之詞’是否也有共同的心理基礎？” 錢鍾書，「詩可以怨」，《七綴集(修訂本)》，133쪽.

고대 시가에 ‘비극’ 의식이 결핍되어 있다는 기존 관점을 바로 잡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에 내포된 인류 공통의 보편적 정서의 존재성을 밝히고자 했다. 錢鍾書는 중국과 서양 시가의 ‘다름’ 속에서 보편적인 규율을 재발견하여 양자의 ‘조화’와 ‘공존’을 실현하고자 했다.

錢鍾書에게 있어서 ‘전통’은 학문적으로 계승과 재해석이 필요했던 연구대상이었다는 점에서 ‘詩可以怨’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詩可以怨’이 만들어낸 본연의 시학사상 및 고대 學人들이 이루어낸 학술담론의 공고함에도 불구하고, 錢鍾書는 ‘詩可以怨’이라는 전통을 과감히 ‘해체’시켜 비판을 하였다. 또한 동서고금의 시가에서 ‘詩可以怨’이 지닌 모순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錢鍾書는 비교문학에서의 상호 비교, ‘전체—부분’, ‘부분—전체’의 상호성을 원칙으로 하는 ‘해석학적 순환’, ‘변증법’ 등의 방법론을 비롯하여 문학, 미학, 심리학 등 인접학문을 접목시켜 ‘詩可以怨’의 문학적 가치와 학술적 의의를 새롭게 조명하였다.

錢鍾書의 이러한 학문적 실천은 궁극적으로 자국문학인 중국문학에 대한 ‘自覺’의 확장과 심화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錢鍾書의 학문 생애에 있어 중국문학은 언제나 그와 함께 했던 일종의 동반자나 다름없었다. 그는 자국의 문학 및 문학이론 등이 지닌 편협성과 한계성을 인식하면서도 서양에 대한 맹목적 수용으로는 이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겼다. 다시 말해 양자를 고르게,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통섭’적 안목은 錢鍾書에게 있어 중국문학 및 문예이론이 지녔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학문적’ 대안이었던 것이다.

參考文獻

<1차 자료: 錢鍾書 원저>

- 錢鍾書, 『管錘編』, 北京, 中華書局, 1979.
 錢鍾書, 『談藝錄(補訂本)』, 北京, 中華書局, 1984.
 錢鍾書, 『七綴集(修訂本)』,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錢鍾書, 『錢鍾書英文文集』, 北京, 外語教學與研究出版社, 2005.

<2차 자료: 연구 저서>

- 中國社會科學院訪美代表團著, 『訪美觀感』,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79.
 北京師範大學中文系比較文學研究組選編, 『比較文學研究資料』,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86.
 陳子謙著, 『錢學論』, 成都, 四川文藝出版社, 1992.
 游國恩, 王起, 蕭滌非, 季鎮淮, 費振剛主編, 『中國文學史』(一),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2.
 季進著, 『錢鍾書與現代西學』, 上海, 三聯書店, 2002.
 傅道彬著, 『詩可以觀: 禮樂文化與周代詩學精神』, 北京, 中華書局, 2003.
 鍾嶸著; 周振甫譯註, 『詩品』, 南京, 江蘇教育出版社, 2006.
 樂黛雲著, 『比較文學與比較文化十講』,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4.
 汪榮祖著, 『槐聚心史: 錢鍾書的自我及其微世界』, 臺北, 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 2014.

- 마르틴 하이데거 저, 이기상 역, 『존재와 시간』, 서울, 까치글방, 1998.
 장파 저, 유중하 등 공역, 『동양과 서양, 그리고 미학』, 파주, 푸른숲, 1999.
 김병옥, 『도이치문학 용어사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이브 슈브렐 저, 박성창 역, 『비교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민음사, 2002.
 빌헬름 딜타이 저, 손승남 역, 『해석학의 탄생』, 서울, 지만지, 2011.
 리차드 팔머 저, 이한우 역,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2011.

한스게오르크 가다머 지음, 이길우 등 옮김, 『진리와 방법1』, 파주, 문학동네, 2012.

한스게오르크 가다머 지음, 임홍배 옮김, 『진리와 방법2』, 파주, 문학동네, 2012.
안대회 저, 『궁극의 시학』, 파주, 문학동네, 2013.

<2차 자료: 논문 및 기타>

傅道彬, 「“詩可以怨”嗎?」, 『文藝研究』, 第11期, 2007.

高旭東, 「論錢鍾書『詩可以怨』的合理性及其限度」, 『復旦大學學報』, 第4期, 2011.

韓知延, 「錢鍾書: “文”與“學”之間 (1929-1949)」, 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13.

김동규, 「니체 철학에서의 고통과 비극 - 문화철학의 관점에서」, 『철학탐구』, 제26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9.

김수경, 「朝鮮時代『詩經』인식에서의 詩可以怨과 溫柔敦厚」, 『한국한문학회』, 52권, 한국한문학회, 2013.

이영섭, 「슬픔에 대한 중국문학과 서양문학의 문화적인 공감과 소통 : 錢鍾書의 <詩可以怨> 解題와 譯註」, 『중국어문논역총간』, 제35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014.

한지연, 「錢鍾書의 비평적 글쓰기와 『管錐編』 연구를 위한 小考」, 『중국현대문학』, 제67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13.

한지연, 「錢鍾書『談藝錄』에 나타난 비평의식- 第一則 <詩分唐宋>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70집, 중국학연구회, 2014.

Abstract

The Poetry of consilience
 – A Comparative Literary Approach of Qian Zhongshu 錢鍾書's
 “*Poems Emblem Plaintiveness* 詩可以怨”

Han, Ji-yeon

The theory that “Poems Emblem Plaintiveness” is very important in Chinese ancient literary criticism, and the research is one of hot debate in ancient literature. The so-called “The anger the poet”, By Confucius 孔子 “Poems Emblem Plaintiveness” to Sima Qian 司馬遷 “Out of Indignation Comes Writing”, and Han Yu 韓愈’s “Injustice Provokes Outcry”, including the tragedy theories of Western Literature etc, makes it developed into ancient Chinese literary theories of a traditional system. This paper was performed to study of *Poems Emblem Plaintiveness* 詩可以怨 written by Qian Zhongshu 錢鍾書 and its implications. Specifically, this paper writing for “Poems Emblem Plaintiveness” of the formation, theoretical meaning and function are discussed and studied, strive for comprehensive and multi angle for “Poems Emblem Plaintiveness” have a clear understanding.

Based on this point, This paper is consisted of foreword, two body chapters, conclusion and the references.

Chapter one gave an introduction to this paper and reviewed the former research.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in Chapter two, tried to discuss about the implication of *Poems Emblem Plaintiveness*.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Poems of pain and sorrow is a really ancient activity wherever in China or the west, Qian’s tried to seek the internal meaning of “Poems Emblem Plaintiveness” and the individual ideal, he also found there some common ground, which means that the literary mind and the heart of poetry. Chapter three used in theory of hermeneutic to read and analyze *Poems Emblem Plaintiveness*. As to Qian Zhongshu, it was not only a way of his scholarly expression, but also a method of

communicate with tradition. For this reason, Qian was based on ancient and modern, Chinese and foreign, through the hermeneutics circle, and looked for meaning of “Poems Emblem Plaintiveness”.

This academic practice of Qian Zhongshu could ultimately see a deepening and expansion of the consciousness for Chinese literature. Because in academic life Qian Zhongshu of Chinese literature always there was some sort of theme he needed. Between Chinese Literature and Western Literature, Qian used in the theory of merging, tried to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of Chinese literature and literary theory. I think Qian's *Poems Emblem Plaintiveness* will provide new insight into Qian's academic achievement, include many faces of theory in Chinese and Western literature.

Key words : Qian Zhongshu, *Poems emblem plaintiveness*, the heart of poetry, literary mind, analytical cycling, consilience poetics

투 고 일 : 2016. 9. 10. / 심 사 일 : 2016. 9. 15. ~ 2016. 10. 15. / 게재확정일 : 2016. 10. 16.